

연해자평

| 성정론

| 性情論

正格解説

육친을 六神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正官, 偏官, 印, 財, 食神, 傷官으로 나누기 때문이다.

즉, 인성과 재성은 正偏을 가리지 않고 하나로 본다.

이렇게 보면 八格이 아니고 육격(六格)이 된다.

1. 정관격(正官格)

인수격을 겸하면 관인격(官印格),

인수용신일때 정관패인(正官佩印),

재격을 겸하면 재관격(財官格)이라고 함.

1. 정관격(正官格)

정관은 반드시 사주에 나타나야 한다. 지장간에 숨어 있는 것은 귀하지 못하다. 정관이 월령이거나 힘이 있으면 이름을 떨치고 국가사회에 이바지하는 대장부이다.

그러나 식상이 강하여 관성이 제극을 심하게 받으면 군자가 소인배에게 굴복하는 것과 같으니 小人의 사주이다.

이 때는 인수가 있어 식상을 제압해야 한다.

1. 정관격(正官格)

정관은 형충을 크게 꺼리고 상관도 꺼리며 칠살이 혼잡되는 것을 꺼린다. 정관도 많으면 칠살과 같다. 정관은 하나만 있어야 귀하다. 정관이 암장되어 있으면 칠살은 없거나 약해야 한다. 만약 정관은 암장되어 있는데 칠살이 사주에 나타나 있거나 천간에 투출하였으면 파격이 된다. 정관이 형충파해되면 매사 성공하기 어렵다.

1. 정관격(正官格)

살도 정관과 같다. 정관은 財旺하여 生官하고 인수가 있어 보호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양인, 칠살이 있으면 가난한 命이 된다. 월령 정관인데 時에 편관이 있으면 이는 정관격으로 보기 어렵다. 정관이 많으면 잡되니 오히려 제복하여야 한다. 사주에 관성이 많은데 다시 관성운이 오면 매사 성취되지 못한다.

1. 정관격(正官格)

월령정관에 천간에 정관이 투출하지 않았어도 지지에 官方, 官局을 이루면 정관격이 된다. 연, 시에 정관이 투출하고 지지에도 관이 있으면 정관격이 된다. 대개 정관은 신왕하고 인수가 있으면 발복한다. 사주에 정관이 있는데 상관운이 되면 불길하다. 인수와 관성이 왕성한 운이 와야 발복하고 관직을 얻는다.

1. 정관격(正官格)

정관격이 좋아하는 것

1. 신왕
2. 재왕생관(財旺生官), 인수화관(印綬化官)
3. 칠살양인이 없는 것(無七殺羊刃)
4. 정관일위투출(一位露官)

정관격이 꺼리는 것

1. 신약
2. 형충파해
3. 관살혼잡
4. 상관, 양인

2. 편관격(偏官格)

인수격을 겸하면 살인격(殺印格), 관성용신일때 인수용관(印綬用官), 월령이 칠살인데 일지, 시지에 있는 양인을 쓰면 살격봉인(殺格逢印), 월령이 칠살인데 식신이 투출하여 칠살을 제압하는데 효신이 있으면 식신을 파극하니 거식호살(去食護殺)이라 이름하니 흉하고, 재격을 겸하면 재살격(財殺格)이라고 함.

2. 편관격(偏官格)

(편관)

편관은 제복(制伏)됨이 마땅하니 편관 칠살은 小人이기 때문이다. 小人是 無知하고 흥폭하며 꺼리는 것이 없다. 노력하여 군자를 기르고 服役하여 군자를 호위하는 것이 소인의 책무이다. 따라서 징계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제복시켜야 한다. 제복이 없으면 간사하여 속이고 敵害를 이룬다.

2. 편관격(偏官格)

소인이 권력을 잡으면 災禍가 이른다. 편관칠살이 있으면 호랑이를 안고 자는 것과 같으니 위엄이 있어 못 짐승을 다스릴 것 같지만 점차 고삐가 풀리면 근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다시 삼형이 모두 있으며 양인이日時에 있고 또 육해가 있으며 다시 괴강이 상충하면 이 사람은 그 흥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사주에서 제복(식신제살)이 되고 운로에서 다시 제복하는 운이 오면 大貴한 命이다.

2. 편관격(偏官格)

칠살이 하나 있고 제복이 되면 좋으나 사주에 칠살이 여럿 있고 운로에서 제복하는 운이 되면 오히려 복이 없다. 왜냐하면 흥폭함이 이리와 같아도 제복할 수 없으면 제복운이 오히려 나쁜 것이다. 이런 때는 제복하려고 할 것이 아니요 인수로 설기하여 일주를 돕는 것이 좋다. 제복함이 있으면 편관이라 하고 제복이 없으면 칠살이라 한다. 소인이 제어되면 正道가 행함이 되나 제복이 없으면 정도를 행할 수가 없다. 칠살을 보고 무조건 흥하다고 해서는 안된다.

2. 편관격(偏官格)

귀격사주가 칠살이 있는 자가 많다. 흉신이 모이고 대운이 다시 살운이 오면 그 화는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신왕하고 칠살이 제복되면 묘하니 살이 변하여 권세가 된다. 신왕하고 化殺이 되면 편관이요, 신약하고 제복이 없으면 칠살이 된다. 사주원국에 제복이 많으면 편관운이 와야 하고, 제복이 없으면 제복운이 와야 한다. 사주에 제복이 심한데 다시 대운에서 제복이 되면 편관의 기운이 없어지는데 월령이 양인과 충이 되면 흉하다.

2. 편관격(偏官格)

신왕하고 칠살이 약하면 가살위권인(假殺爲權刃)이라 하여 권세를 얻는다. 이런 경우 칠살은 형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 편관격(偏官格)

(칠살)

칠살은 편관이 제복되지 못한 것인데 신왕하고 합살(合殺)하는 것을 좋아하며 제복됨을 좋아하고 양인을 기뻐한다. 신약한 것을 꺼리고 財星이 생하는 것을 싫어하며 제복이 없는 것을 꺼린다. 신왕하고 힘이 있으면 편관이라 하고 신약하여 칠살을 제복하지 못하면 칠살이다. 칠살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흉하다고 말하면 안되니 정관격이 편관격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

2. 편관격(偏官格)

거부(巨富)와 대귀(大貴)인이 이 칠살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신왕하고 합살하는 것이 묘하니 甲木이 庚金칠살인데 병정화가 제압하는 것을 좋아한다. 귀격사주가 칠살이 있는 자가 많다. 흉신이 모이고 대운이 다시 살운이 오면 그 화는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신왕하고 칠살이 제복되면 묘하니 살이 변하여 권세가 된다. 신왕하고 化殺이 되면 편관이요, 신약하고 제복이 없으면 칠살이 된다. 사주원국에 제복이 많으면 편관운이 와야 하고, 제복이 없으면 제복운이 와야 한다.

2. 편관격(偏官格)

사주에 제복이 심한데 다시 대운에서 제복이 되면 편관의 기운이 없어 지는데 월령이 양인과 충이 되면 흉하다. 신왕하고 칠살이 약하면 가살위권인(假殺爲權刃)이라 하여 권세를 얻는다. 이런 경우 칠살은 형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乙木이 습殺하면 탐합망살(貪合忘殺)이라 하여 좋다. 칠살은 마땅히 제복해야 하나 제복이 너무 태과한 것도 좋지 않다. 사물은 極한 즉 반대로禍가 되기 때문이다. 신약한데 신약운이 오면禍가 걸잡을 수 없다.

2. 편관격(偏官格)

사주에 제복이 있으면 칠살운이 좋고, 사주에 제복이 없으면 칠살운은 나쁘고 신왕운에 양인까지 있으면 大貴하다. 재가 왕성한 것은 싫어하니 재가 칠살을 생하기 때문이다. 세운에 재왕운이면 신왕이라도 (칠살이 기신이면) 災禍가 많다. 신약은 더욱 심하다.

갑신일 을유일 정축일 무인일 기묘일 신미일 계미일은 칠살이 일지에 있으니 성격이 급하고 영리하며 교묘하며 총명하나, 칠살이 많으면 주는 凶戾하고 가난하며 박복할 것이다.

2. 편관격(偏官格)

다시 月에서 칠살을 보는 것은 重하고 時에서 보는 것은 輕하다. 칠살은 하나만 있어야 귀한데 年이나 時에서 다시 보면 살이 많으니 화가 된다. 이 때에는 제복하는 운로가 와야 좋다. 가장 꺼리는 것은 일지칠살과 양인이 충하는 것이니 대흉하다. 時의 칠살도 일위(一位)를 요하며 양인이나 형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 편관격(偏官格)

편관격이 좋아하는 것

1. 신왕
2. 식신제살(食神制殺)
3. 인수화살(印綬化殺)
4. 칠살일위투출(一位露殺)
5. 양인(羊刃)

편관격이 꺼리는 것

1. 신약
2. 관살혼잡(官殺混雜)
3. 재왕생살(財旺生殺)

2. 편관격(偏官格)

귀격사주(貴格四柱)



2. 편관격(偏官格)

귀격사주(貴格四柱)



2. 편관격(偏官格)

빈궁포병(貧窮抱病)



2. 편관격(偏官格)

인격(印格)에 정관격을 겸하면 관인격(官印格, 인수용관印綬用官),
월령이 인수이고 인수가 약할 때 칠살이 인수를 생해주면
인수봉살(印綬逢殺),
신왕하고 월령이 편인일때 식신이 투출하여 설기되면
편인투식(偏印透食),
편관격을 겸하면 살인격(殺印格)이라고도 함.

2. 편관격(偏官格)

관성(官星)

1. 관살혼잡이라도 살이 쇠지에 있고 관이 왕지에 있으면 혼잡으로 보지 않는다. 또는 칠살이 제복되었어도 혼잡으로 보지 않는다.
2. 時柱칠살은 반드시 흉은 아니니 월에서 제압하고 신왕하면 反殺爲權이 된다. 그러나 칠살이 연월에 다시 있으면 辛苦艱難의 명이다.

2. 편관격(偏官格)

관성(官星)

3. 雜氣財官은 형충운이 와야 재관이 투출하여 발복한다.

원래 형충파해가 있으면 다시 형충을 요하지 않는다.

비견이 있으면 천격으로 본다.

4. 정관을 합하면 귀하지 않고(羈絆), 칠살을 합하면 흉이 아니다.

5. 신약살왕은 빈천하지 않으면 夭死한다.

2. 편관격(偏官格)

관성(官星)

6. 관성이 태왕한데 관왕지로 가면 흉화가 생한다.
7. 정관이 정인을 대동하고 형충파해가 없으면 나라의 동량이 된다.
8. 신약하면 정관도 칠살과 같고, 신왕하면 칠살도 정관과 같다.
9. 時에 일록이 되면 관성운을 기뻐하지 않는다.

3. 정인격(正印格)

이 격에 가장 요망하는 것은 인수生旺함이며 死絶地를 꺼린다.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 묘하다. 월령에 인수가 있는 것이 가장 낫다. 관성과 인성운에 발복하고 재운에는 인수를 파괴하니 반대로 탐재괴인(貪財壞印, 재를 탐하여 인수를 파괴함)이 되어 불리하다. 세운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정관만 있고 인수가 없으면 참된 관성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인수는 정관이 없더라도 오히려 발복할 수 있다. 인수는 초가 지혜가 많고 심성이 후덕하다.

3. 정인격(正印格)

인수는 財를 두려워하나 사주중에 또는 운로중에 정관을 보면 貴가 되고 福이 된다. 관성이나 칠살은 정인을 생해주니 기뻐하는 것이고 재성은 인수를 파괴하는 꺼리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다. 정인이 묘한 것은 부모의 음덕을 받고 부모의 재물을 물려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만일 격이 좋은 사주가 여럿 있는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면 인수가 많은 사주를 제일로 친다.

3. 정인격(正印格)

주는 일생에 병이 적고 음식을 잘 먹는다. 혹시 財가 많아 왕성하면 반드시 막히는 일이 많다. 인수격은 인수가 사절지로 행하는 운로를 가장 꺼린다. 인수는 月이나 時에 있는 것이 묘한데 월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月上正印은 부모의 덕을 입을 것이고 年에 있으면 조상의 힘을 얻을 것이다. 時上에 있으면 자손의 덕을 보고 장수하면 말년이 즐겁고 길하다.

3. 정인격(正印格)

정인과 정관을 모두 얻으면 관인양전(官印兩全)이라 하여 좋다. 관성운이나 인수운에 발복한다. 만일 관성을 용신으로 쓰는데 사주에 나타나지 않고 정인이 있어 취하면 묘하다. 대운이 재운이 되어 인수를 파괴하면 破家하고 집을 떠난다. 사절지에 대운이 임하면 실직을 하지 않으면 요절한다.

3. 정인격(正印格)

정인격이 좋아하는 것

1. 인수생旺 2. 정관생인(正官生印)
3. 재관상생(財官相生) 4. 月上正印

정인격이 꺼리는 것

1. 財氣왕성 2. 탐재괴인(貪財壞印)

3. 정인격(正印格)

대귀격(大貴格)

庚	癸	庚	戊
申	酉	申	戌

4. 편인격(偏印格)

편인을 도식(倒食)이라 하는데 식신을 파괴하고 財神을 충하기 때문이다. 일명 탄함살(呑陷殺)이라고도 한다. 財를 용신으로 쓰거나 식신을 용신으로 쓸 때는 크게 꺼린다. 사주에 편인과 식신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박복하고 수명도 짧다.

4. 편인격(偏印格)

칠살이 있어 식신이 제살하고 있는데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 더욱 흉하다. 사주에 편인이 있으면 흡사 존장(존장)이 나를 제압하여 자유롭지 못한 것과 같다. 일을 하는데 항상 결함이 있고 방해가 있으니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다. 재물을 모았다가 잃어버리기를 반복한다. 공연히 바쁘고 매사 성공하기 어렵다.

4. 편인격(偏印格)

편인격이 좋아하는 것

1. 편재제압편인(偏財制壓偏印)
2. 비견설기편인(比肩洩氣偏印)

편인격이 꺼리는 것

1. 편인견식신(偏印見食神)
2. 칠살생편인(七殺生偏印)

4. 편인격(偏印格)



4. 편인격(偏印格)

壬	甲	丙	甲
申	戌	寅	戌

己	戌	丁
巳	辰	卯

5. 정재격(正財格)

정재란 나의 妻財이다. 반드시 신왕하여야 채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약하면 비록 처재가 많더라도 목전에 보기만 할 뿐 전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가 힘이 있어야 하지만 재가 많고 신약하면 안된다. 만약 사주에 재가 많으면 일주가 신왕하여야만 비로소 財로 논하는 것이요, 신약하면 財도 殺로 변한다.

5. 정재격(正財格)

재가 많은데 천간에 관성이 있고 신약하면 가난하고 박복함을 치료하기 어려우니 신왕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재다신약이면 비록 소년에 좋다 할지라도 여의치 못하고 항상 바쁘고 번다할 뿐이다. 혹 중년이 나 말년에 인수운이 오거나 삼합국으로 인수, 비겁국을 이루면 갑자기 발복하게 된다.

5. 정재격(正財格)

소년에 인수운이 오고 나서 중년말년에 財官운이 오면 궁핍하고 처량하며 시비분쟁이 많으니 대개 재물은 분쟁의 발단이 되기 때문이다. 財가 많으면 도기(盜氣)가 되는 바, 신약하고 식상운이나 재관운이 되면 기이한 禍가 생기고 삼형이나 칠살과 함께 하면 흉함을 말로 다할 수 없다.

5. 정재격(正財格)

정재란 신왕함과 인수를 좋아하고 관성과 편인, 신약함을 싫어한다. 관성을 싫어하는 것은 기운을 빼앗기기 때문이요, 인수를 좋아하는 것은 일주를 돕기 때문이다. 월령이 정재라면 부호의 집안에 출생하였더라도 양자가 아니면 서출이다. 월령은 정인의 자리인데 정재가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대개 재성은 편재정재를 불문하고 인수를 좋아하니 능히 발복한다.

5. 정재격(正財格)

정재격이 좋아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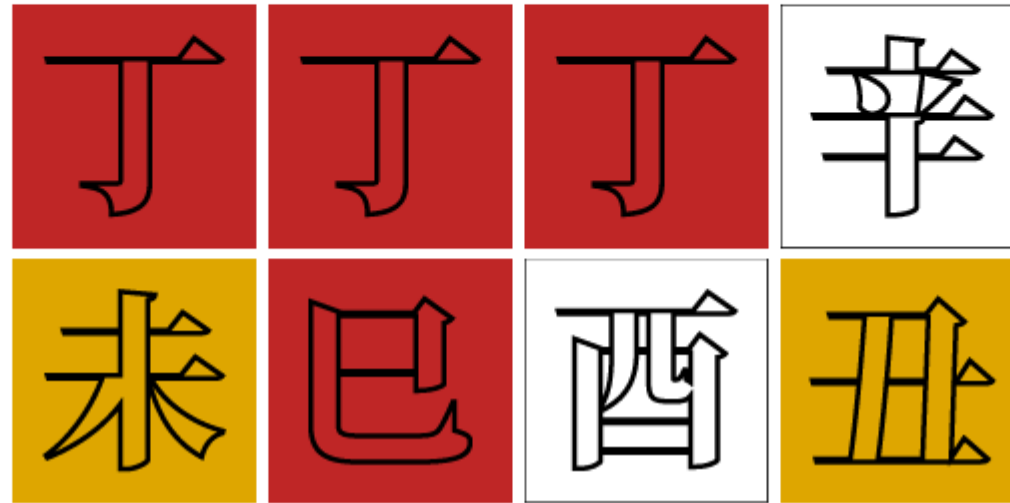
1. 신왕
2. 신왕에 정인이 있을 때

정재격이 꺼리는 것

1. 재다신약
2. 재가 약한데 관성이 있을 때
3. 편인

5. 정재격(正財格)

(巨富)



5. 정재격(正財格)

(貧窮命)

丙	丙	乙	庚
申	申	酉	申

庚	己	戊	丁	丙
寅	丑	子	亥	戌

6. 편재격(偏財格)

편재는 중인지재(衆人之財)라 형제자매가 겁탈하는 것을 두려워하니 복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관성이 있으면 禍患이 百出한다. 편재는 천간에 투출하는 것을 즐거워하나 지지에 암장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오직 비겁에 의해 分奪되는 것을 꺼린다. 편재가 하나만 있어서 관성도 생할 수 없고 재성도 약하니 쓸모가 없다. 재가 약하면 재가 왕성해지는 운로가 와야 영화가 있고 재가 많은데 관성을 생함이 없으면 묘하지 못하다.

6. 편재격(偏財格)

신약한 것은 더욱 꺼린다. 편재가 있으면 초는 강개(慷慨)하는 마음이 있어 불의를 보고 탄식하며 재물을 아끼지 않는다. 재물이 풍성하다. 편재가 왕성하면 관성도 왕성하게 된다. 사람됨이 인정이 있으나 속임도 많다. 대개 재물은 자신을 이롭게 하지만 편재는 경쟁과 비방을 초래하는 것이다. 신왕하고 재왕운에 가면 복록이 크나 태왕하면 꺼린다. 형제(비겁)이 많으면 재성이 파괴되니 역시 좋지 않다. 財가 많으면 재와 일주가 어느 쪽이 강한지를 비교해 보라.

6. 편재격(偏財格)

일간과 재가 힘이 균등하면 관성운에 발복하여 관록명예를 얻는다. 그러나 재다신약인데 관성운이 되면 이미 재의 도기(盜氣)에 의해 약해졌는데 관이 일주를 극하니 발복이 안될 뿐만 아니라 禍患을 예방하여야 한다. 편재가 있는데 사주에 관성이 있으면 好命이라 하는데 비견 겁제가 여럿 투출하였으면 관운에 발복한다. 그러므로 묘한 이치가 그 通變을 아는 데 있다.

6. 편재격(偏財格)

편재격이 좋아하는 것

1. 신왕 2. 재왕생관(財旺生官)
3. 식신생재

편재격이 꺼리는 것

1. 재다신약
2. 비겁중중-군겁쟁재
3. 재가 약한데 관성이 있을 때

7. 식신격(食神格)

식신격에 살을 쓰면 식신제살격(食神制殺格),

월령이 식신이고 사주에 편인이 있어 식신을 파극하면

식신봉효(食神逢梟),

식신격에 재를 쓰면 식신생재격(食神生財格)이라고 함.

7. 식신격(食神格)

식신은 財를 생해주는 것이니 일간의 기운을 뺏아가는 도기(盜氣)라고도 한다. 사주에 식신이 있으면 초가 재복이 두텁고 음식이 풍족하며 체구도 비대하고 즐겁고 自足한 생활을 한다. 자식도 있고 장수한다. 항상 관성을 보는 것을 꺼린다.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것을 꺼린다. 재성과 상생되는 것을 좋아한다. 식신은 하나만 있어야 좋으니 신왕함을 좋아하고 인수를 싫어하니 역시 식신을 상하기 때문이다. 식신의 길흉은 대개 재성의 길흉과 비슷하다.

7. 식신격(食神格)

식신격이 좋아하는 것

1. 신왕
2. 財星 (식신생재)

식신격이 꺼리는 것

1. 신약 2. 편인
3. 인수태왕 4. 관성

7. 식신격(食神格)

乙	癸	乙	乙			
卯	酉	酉	巳			
戊	己	庚	辛	壬	癸	甲
寅	卯	辰	巳	午	未	申

8. 상관격(傷官格)

상관격에 인성을 쓰면 상관용인격(傷官用印格)

상관격에 재를 쓰면 상관생재격(傷官生財格)이라고 함.

8. 상관격(傷官格)

상관은 其驗如神이니 상관상진(傷官傷盡, 상관에 의해 관성이 제거되는 것)됨이 중요하다. 즉, 사주에 관성이 없거나, 있어도 상관에 의해 파괴되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상관격에 관성이 破盡되지 못했을 때 관성운이 오면 災禍가 극심하다.(傷官見官 爲禍百端) (그러나 상관격에 관성을 용신으로 쓰는 예외-상관용관격이 있으니 주의할 것.) 월령상관에 사주가 배합하여 상관이 되고 다시 대운이 신왕운으로 가면 眞貴人이다.

8. 상관격(傷官格)

상관격은 초가 다재다능하고 예술적 소질이 있으며 오만하고 기가 세다. 항상 천하인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군자도 이를 싫어하고 衆人도 이를 싫어한다. 운로에서 官을 보면 禍를 말로 할 수 없다. 혹시 길신이 있어 구제하더라도 악질(惡疾)이나 관형(官刑)을 만나게 된다. 만일 운로가 관성을 극하는 운으로 가고 재가 왕성하지 않으면 안락하고 형통한 사람이다. 자세히 推詳하면 萬無一失이다. 상관 역시 내 기운을 빼가는 것이니 도기(盜氣)인데 정인이 있으면 상관을 제압한다.

8. 상관격(傷官格)

만약 인성이 전혀 없고 신약하면 정관을 꺼리나 칠살은 꺼리지 않는다. 칠살은 인수를 생하고 상관에 의해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甲木이 辛官을 쓰는데 丁火가 왕성하면 능히 土財를 생한다. 이 때 辛金을 보는 것을 꺼린다. 상관부진(傷官不盡)으로 정관이 투출하였는데 세운에서 관성을 보면 그 화가 말로 할 수 없다. 만약 상관상진(傷官傷盡)이고 사주에 관성이 일점도 없는데 신왕운이나 인수운으로 행한다면 貴하다. (그러나 오행강약을 소상히 따져야 함.)

8. 상관격(傷官格)

사주에 상관상진이고 관성이 일점도 없더라도 재성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가난하고 박명한 사람이다. 상관격은 오직 財를 만나야 묘하다. 이 財가 능히 官을 생하기 때문이다. 상관격은 대운세운에서 정관을 만나는 것을 가장 꺼리는 바 상관견관이 되어 재화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재를 보면 쓸 수 있다. 상관격에 상관이 태왕하면 그 피해가 칠살과 다름없이 심하니 그 증험이 神과 같다.

8. 상관격(傷官格)

연주에 상관이면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고 월주에 상관이면 형제가 온전하지 못하며 시주에 상관이면 자식이 無傳이라. 일지에 상관이면 처첩이 온전치 못하다. 상관의 화가 가벼우면 멀리 귀양이요, 무거우면 惡刑을 당하고 傷官有戰이면 그 수명을 보존하기 어렵다. 월령에 상관이고 사주에 합으로 모두 상관화되면서 신왕운으로 가면 貴命이다. 상관격은 자기 재주를 믿고 오만하여 타인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므로 여러 사람이 싫어한다.

8. 상관격(傷官格)

상관격이 관성운을 만났을 때 재성이 구제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한다. 그렇지 않으면 질병을 앓거나 관형을 만난다. 상관상진인데 재운으로 가면 발복한다. 이를 傷官見財라고 하니 자세히 추상하면 만무일실이다. 사주에 정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으면 재성이 있어 상관을 재로 화하여 정관을 생해 주면 정관이 보호되어 좋다. 이런 사주가 재왕운으로 가면 발복하고 재성의 사절지로 가면 사망할 것이다. 대운에서 지지에는 財가 없고 천간에만 財가 있으면 허탈하니 쓸모가 없다.

8. 상관격(傷官格)

상관격이 좋아하는 것

1. 신왕 2. 財星 (상관생재)
3. 상관상진(傷官傷盡)에 財運 4. 정인제압상관

상관격이 꺼리는 것

1. 상관견관

양인격(羊刃格)

월령이 양인인데 칠살을 용신으로 삼으면 양인로살(羊刃露殺, 살인격 殺刃格)이라고도 한다. 양인은 천상의 흉성으로서 인간의 兇殺인데 편재, 칠살을 좋아하고 인수를 좋아한다. 양인은 괴강과 삼합을 꺼린다. 갑병무경임五陽에 刃이 있고 을정기신계五陰은 刃이 없으니 그래서 陽刃이라 한다. 사주에 양인이 있다고 무조건 흉하다고 말하지 말라. 양인이 있는 자에 富貴人이 많다.

양인격(羊刃格)

대개 양인은 칠살과 같은 부류이다. 칠살이 양인이 없으면 이름을 드날리지 못하고, 양인이 칠살이 없으면 위엄이 없다. 양인과 칠살이 모두 있어야 비상한 사람의 명조이다. 대개 신왕함을 요구하고, 상관운이나 양인운을 만나면 좋지 않다. 사주에 칠살과 양인이 있는데 세운에서 다시 만나면 그禍가 비상하다. 만약 사주에 양인이 있고 칠살이 없는데 칠살운이 오면 오히려 복록이 두텁다. 상관격에 재가 왕성하거나 신약하고 칠살이 왕성한 것을 가장 꺼린다.

양인격(羊刃格)

戊	甲	己	庚		
辰	寅	卯	申		
乙	甲	癸	壬	辛	庚
酉	申	未	午	巳	辰

양인격(羊刃格)

